광주시립미술관 지역 교류전 눈에 띄네

여수 예울마루 공동주최
김대길 조각전…4월 2일까지

시립사진전시관 광주·대구 교류전
‘도시를 말하다, 달·빛 말걸기’ 사진전

8월 화순군과 연계
화순 출신 서예가 구철우 선생 조명

견석기 작 ‘광주 터미널’

지난해부터 타 지역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 다양한 협력 사업을 펼친다. 지난해 화순군 연계 ‘오승우전’, 장성군 연계 ‘김영중 조각전’을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화순군, 전북도립미술관, 대구사진작가 등과 공동 전시를 연다.

지난해 예울마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미술관은 오는 4월2일까지 김대길 조각전 ‘생명의 힘 그 앞에 서다’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광주 전시 이후에는 예울마루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으로 개막식은 16일 오후 4시다.

김대길 작가는 여수 출신으로 현재 전남대 미술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천안 독립기념관 ‘불굴의 한국인상’으로 유명한 장성 출신 김영중 작가를 사사했던 김행신 전남대 교수를 스승으로 모시며 남도 조각 맥을 잇고 있다.

작품은 청동, 인조마블 등 다양한 재료로 생명의 본질을 표현한다. 주요작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상징조형물, 전남대 5·18 상징기념 조형물, 여수 중앙동 이순신 장군상, 여수 애양원 손양원목사 순교 추모비 등이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총 35점(복수형 작품 포함 74점)을 선보인다.

작품들은 형태적으로 수직형과 원형 구조가 특징이다 . 다양한 동·식물, 곤충 형상을 최대한 단순화하고 부분적으로 재구성해 마치 다양한 생명체들로 조립한 탑과 같은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작품 색채는 주로 흑백이다. 낮과 밤, 음양 조화, 세상에 존재하는 대칭형 구조 존재를 의미한다.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는 광주·대구사진작가들이 교류전을 연다. 미술관과 (사)한국현대사진가협회가 공동주최한 ‘도시를 말하다 2017-달·빛 말 걸기’전이 10일부터 4월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같은 주제로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먼저 선보였던 전시이며 올해 대구에서 순회전을 계획하고 있다.

전시부제는 ‘광주가 달구벌을, 대구가 빛고을을 이야기하다’로, 광주작가 19명과 대구작가 5명이 참여해 각자 시각으로 상대방 지역을 촬영한 결과물 100점을 선보인다.

김대길 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사색의정원(낮)’

또 광주작가들이 대구를 대표하는 장소인 ‘서문시장’을 렌즈에 담은 작품 70여점도 공개한다.

대구 견석기 작가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주목했다. 작품 ‘광주터미널’은 야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고 버스 수십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다.

류태열 작가와 인성욱 작가는 광주 오월을 주제로 삼았다. 국립 5·18민주묘지를 담은 류 작가의 ‘기억합니다’와 인 작가의 ‘오월어머니 이숙자’는 아직 아픔이 가시지 않은 비극을 이야기한다.

광주 작가가 바라본 대구는 근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김인혜 작가는 대구 대표 근대거리를 담은 ‘진골목 사람들’을, 백영우 작가는 ‘여인숙골목-북성로’를 전시한다.

미술관은 또 오늘 8월 화순군과 연계해 화순 출신 서예가 구철우(1904~1989) 선생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화순군 한천면에서 태어난 구 선생은 서화에 능통해 국전 서예·사군자 부문에서 연속 4회 특선(1956~1959)을 하며 이름을 알렸다. 연진회 주요 회원으로 활동했고 연진회미술원 초대 원장을 역임했다. 순천 선암사 삼성각(三聖閣) 편액과 허백련 묘비가 그의 글씨이다.

또한 지난해 체결한 전북도립미술관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10일부터 3월26일까지 전북도립미술관에서 ‘호남의 현역작가들’ 교류전도 연다. 내년에는 광주에서 전시를 개최한다. 문의 062-613-711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 23개 미술관 소장작품 ‘한자리에’

곽남배 작 ‘원두막’

3월14일까지
서울 ‘광주전남갤러리’
‘전남예찬…’ 기획전

전남지역 미술관들의 소장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오는 3월14일까지 서울 ‘G&J광주전남갤러리’(인사동 인사마루 본관 3층)에서 ‘전남예찬×MUSEUM’ 기획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전남지역 소재 23개 공·사립미술관이 참여해 원로부터 중견, 청년 작가작품까지 소장품 23점을 선보인다.

주요 작품으로는 오승우 작가의 ‘백모란’, ‘갯벌작가’로 유명한 박석규 작가의 ‘갯벌에서 살다’, 백민미술관장을 역임한 조규일 작가의 ‘관방제림’ 등이다. 또 전통회화 대가 소치 허련 작가의 ‘산수화’, 남동 허건 작가의 ‘삼화도’, 백포 곽남배 작가의 ‘원두막’, 아산 조방원 작가의 ‘산운’ 등 남도 전통회화 작품을 전시한다.

그밖에 김광옥 작가의 ‘아침’, 오창록 작가의 ‘풍암정’, 서지영 작가의 ‘파랑새는 파란 하늘을 꿈꾸지 않았다’ 등 현재 활발히 활동하는 중견 작가들도 출품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문을 연 ‘G&J광주전남갤러리’는 전남문화관광재단과 광주시립미술관이 공동 운영을 맡아 각 지역별 작가 전시와 공동 기획전 등을 개최하고 있다. 문의 02-2223-2545~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문화전당 오늘 중앙아시아 문화 학술연구 워크숍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서 1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중앙아시아 문화를 다루는 학술연구 워크숍이 열린다. 이번 워크숍은 문화전당(ACC) 아시아문화연구소와 (사)중앙아시아학회(학회장 정재훈)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ACC 문화정보원 컨퍼런스홀에서 개최한다.

심효윤 ACC 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은 ACC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추진 중인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 영상기록사업 중 펠트공예를 조명한 ‘키르기즈의 혼이 담긴 쉬르닥(shyrdak)’을 발표한다. 이소라 민족음악연구소장은 중국 윈난성 나시족의 농경활동과 농요를 직접 관찰·채록한 ‘윈난성 나시족(納西)의 모심는 소리’를 소개한다.

이선화(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박사는 ‘초원을 나는 닭(草原飛鷄) : 중국 내몽고 초원 사막화 방지의 생태정치’를 다룬다. 주경미(충남대학교) 박사는 ‘부탄의 불교 성지와 파드마 삼바바’로 불교국가 부탄의 주요 불교 문화를 소개한다. 행사는 사전등록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문의 1899-556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통합 사무국 설치하고 시립오페라단 창단

조례 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제 등 도입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김철승)이 통합 사무국을 설치하고 광주시립오페라단 창단을 본격 추진하는 등 변화를 모색한다.

광주문예회관은 ‘문화예술회관 혁신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해 마련한 회관 운영 조례와 광주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이 8일 광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세부 작업을 진행중이다. 개정안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거쳐 3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오페라단은 오는 상반기 창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페라단은 예술감독 등 5명 정도의 최소 상임단원 체제로 운영하며 3월중 공모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페라단이 창단되면 광주시립예술단체는 교향악단, 발레단 등 모두 8개로 늘어난다.

공연기획과 홍보 마케팅까지 아우를 통합 사무국도 설치된다. 자체 기획 공연 등 회관 전체 공연 기획·홍보와 함께 기존 예술단이 개별로 맡고 있던 홍보 업무까지 진행하며 예술단별 기획 업무는 맡지 않는다.

또 시립예술단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해 조기 퇴직을 희망하는 단원에게 수당 등을 제공하고 신규 단원을 충원, 조직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단원들 보수 역시 연봉 대비 10% 정도 인상하는 등 보수 체계도 개편했다.

예술단별 운영위원회도 설치한다. 회관, 예술감독, 외부 전문가, 단원 대표 등 7명 이내로 구성, 연간 주요 공연기획과 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예술감독 위촉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시 예술단체에서 추진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으며 오랫동안 정체성 문제로 논의가 돼 왔던 국극단의 이름을 ‘창극단’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